

바딤 젤란드 약력 및 트랜서핑의 통찰

Vadim Zeland Biography and Transurfing Insights (한국어 번역본)

본 문서는 《리얼리티 트랜서핑(Reality Transurfing)》의 저자 바딤 젤란드(Vadim Zeland)와의 심층 질의응답 인터뷰 전문을 한국어로 정밀 번역한 자료입니다. 트랜서핑의 본질, 가능태 공간, 펜듈럼의 메커니즘, 그리고 외부 의도를 활용한 현실 제어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Q. 바딤 젤란드는 누구인가요?

호기심 많은 독자들이 "바딤 젤란드,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을 때, 저는 보통 "저는 특별할 것 없는 아무도 아닌 사람(Nobody)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저의 약력이나 삶은 그 어떤 관심의 대상도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트랜서핑을 창시한 것은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세계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고대의 지식을 전하는 통로(채널)일 뿐입니다.

특정한 규칙들을 따른다면, 우리가 접하는 일상적인 현실은 완전히 외부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어떤 것이기를 멈추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개인적인 왜곡 없이 전하기 위해, 저는 정말로 '아무도 아닌 자', 즉 그저 '빈 그릇'이어야만 합니다. 위대한 비밀이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표면에 드러나 있으며,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달할 운반자만 있으면 될 뿐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흥미로운 대상은 저에게 이 고대의 지식을 전달해 준 파수꾼(Custodians)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무대 뒤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45세입니다.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는 양자물리학 연구를 했고, 이후에는 컴퓨터 기술 분야에 종사했으며, 현재는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사실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Q. 트랜서핑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트랜서핑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고대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저에게 주어졌고, 저는 지금도 그것을 초월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며, 어디서 읽은 적도 없습니다. 정보는 그저 스스로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방식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영혼이나 외계인과 소통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관찰자(The Observer)'입니다. 그는 고대 지식의 파수꾼 중 한 명으로, 어느 날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 후 정보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관찰자와의 만남은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의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던 전직 물리학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Q. 이 책(또는 이 시리즈)을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터닝 포인트는 제가 제 삶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깨달았을 때 찾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25년쯤 전에 제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을 읽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제 삶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고, 훨씬 쉽고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이 책을 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모하고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시기 이후, 저는 신비로운 채널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안티 트랜서핑'을 실천했습니다. 즉, 모든 일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로부터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집 불통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신의 레슨과 타인의 레슨 중 어떤 레슨이 더 잘 습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똑똑한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뿐입니다.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삶의 고비마다 영혼이 깊은 고통을 겪는 어리석은 자처럼 실수들의 '진정한 본질'을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지식의 전달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Q. 이 책은 어떤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나요?

독자들의 편지를 통해 판단하건대 지리적 위치, 나이, 사회적 지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지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트랜서핑은 세상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방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모든 이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에도 깨어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깊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트랜서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확립된 사실입니다. 대개 이 책들은 어떤 독자들에게는 열렬한 찬사를 받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진심 어린 거부를 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감사의 편지들은 저를 반대하는 이들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Q. '가능태 모델(Model of Variations)'이란 무엇인가요?

현실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질 수 있는 물질적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 너머에 있지만 물질만큼이나 객관적인 형이상학적 형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무한한 이중 거울과 같습니다. 한쪽 면에는 물질 우주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가능한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가 저장된 정보 구조인 형이상학적 '가능태 공간(Space of Variations)'이 존재합니다. 좌표평면 위의 무한한 점들의 집합처럼 가능태의 수는 무한합니다.

이곳에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사건의 기록이 남아 있으며, 우리의 꿈, 투시력, 직관적 지식, 통찰 역시 바로 이 가능태 공간에서 흘러나옵니다. 특정 에너지 조건 하에서 생각은 가능태 공간의 그 어떤 섹터로든 물질화될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에서 '마음과 영혼의 일치'라고 부르는 특정한 상태에 이르면, '외부 의도(External Intention)'라는 신비로운 힘이 탄생합니다. 몇 가지 규칙을 따르면 이 힘은 '주문'을 성취하여 당신이 구상하거나 창조한 것을 현실화할 것입니다.

Q. 이 책은 또 하나의 자기계발 기법에 불과한가요?

트랜서핑은 자기계발 기법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처절하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리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불만을 품는다면 세상도 당신에게 불만을 반사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과 싸운다면 세상도 당신과 싸울 것입니다. 당신이 싸움을 멈출 때, 세상은 당신의 바람을 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용기를 낸다면, 외부 의도가 그것을 당신에게 줄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은 오직 타인에게만 '기적'으로 보일 뿐 당신에게는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나요? 간절해지기를 멈추십시오. 어차피 당신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소유인 것을 가져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요청하거나 애원하지 않고 그저 가져가는 것입니다.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다른 시나리오를 강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라고 요구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바꾸기 전까지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입합니다. 자신을 바꾼 후에는 태양 아래 자신만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당신을 매트릭스의 한 세포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신과 싸우면서 당신은 매트릭스에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세상과 싸움에 뛰어드는 것도 정확히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 싸움에서 무언가를 얻으셨습니까? 매일 당신은 지루하고 피곤한 직장으로 지친 걸음을 옮기거나 대학 생활을 고역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리조트에서 스키를 즐기거나 바닷가에 누워 햇살을 즐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싸움의 결과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투에 참여한 수많은 전사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키 리조트에 갈 만한 돈을 모으기에 한 평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트랜서핑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태양 아래의 자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일어나 당신만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저 '가질 용기'를 내야 합니다.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Q. 다른 책들이 효과가 없었던 곳에서 이 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이 책은 카를로스 카스탄에다(Carlos Castaneda)의 작품들과 자주 비교되는데, 아마도 용어상의 부분적 유사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카스탄에다나 테운 마레즈(Teun Marez)의 책으로 알려진 '전사의 길(Warrior's way)'은 트랜서핑과 전혀 다르며, 고대 멕시코 부족인 톨텍족이 실천했던 근본적으로 다른 교리입니다. 이 두 가르침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가르침 모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가르침 모두 세상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유'로 이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향하는 길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립니다. 톨텍의 추종자들은 세상이 순종하도록 '강제'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트랜서퍼들은 세상이 순종하도록 '허용'하려고 시도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름이 명백합니다.

Q. 당신의 책은 《시크릿(The Secret)》과 어떻게 다른가요?

유일한 차이점은 동일한 지식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뿐입니다. 사실 다양한 가르침들을 비교하다 보면 우파니샤드(Upanishads)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지식은 단 하나의 원천에서 출발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종종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동일한 발견을 하기도 하며, 지구상의 다양한 지점에서 수많은 새로운 트렌드가 동시에 출현합니다.

다른 가르침과 공통점이 전혀 없는 가르침을 찾아보십시오! 만약 찾아낸다면, 그것은 다른 현실에 적용되는 것일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세계에 적용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능력이 없습니다. 조만간 공상 과학 소설조차 현실이 됩니다. SF 작가들은 아직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현실을 묘사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아이디어와 이미지, 그리고 꿈은 인간 마음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통합 정보장 속에 정적으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스승'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어느 선반에서든 마음에 드는 책을 꺼내십시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지식에 접근할 권리를 사용하며, 그것을 얻겠다는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변할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는 자가 발견을 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책을 쓰며, 다양한 분야에서 걸작을 만들어 냅니다. 지식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를 선언한 자에게 열립니다.

Q. 이 이론은 당신 자신에게 어떻게 작동했나요?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트랜서핑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다면(직접적인 경험으로 트랜서핑을 알지 못했다면) 다른 이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기법은 결함 없이 작동하며, 결과는 규칙적으로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비록 이러한 기적들이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그것들에 익숙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감탄하곤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 자신의 의도의 힘으로 현실을 제어해보려고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놀라움과 황홀함을 말입니다. 놀라는 이유는 일반적인 마음이 현실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황홀한 이유는 사람이 환경에 좌우되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멈추고,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Q. 트랜서핑 이론을 정립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트랜서핑 이론을 정립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태 공간에 이미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저의 임무는 그저 '그 공간으로부터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논리적인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모든 장을 동시에 쓰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수많은 개별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 둡니다. 이러한 조각들이 충분히 모이면, 그것들은 어떻게든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으로 발전하며, 그것들을 하나로 결합하고 편집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책이 써지는 일반적인 방식이며, 마치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책 한 권을 쓰는 데 보통 1년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생산성을 측정해 본 적은 없지만, 한 페이지도 쓰지 못하고 수주 동안 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일하려고 시도할 때, 즉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제가 마침내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어떤 힘이 나를 꽁꽁 잡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내 영혼의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찾아옵니다. 저는 무언가를 쥐어짜서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Q. 이 이론은 따라 하기 어렵나요?

트랜서핑은 현실을 제어하는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기술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는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편지를 받는데, 그들은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립니다. "트랜서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며, 직장이든, 높은 연봉이든, 차든, 아파트든 각자 주문한 것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영혼의 짝을 찾고, 어떤 이들은 문제와 콤플렉스에서 벗어납니다.

Q. 어떻게 단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트랜서핑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당신의 세계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그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최고의 특가 상품이 이미 다 팔렸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정말로 텅 빈 진열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물건을 사려면 줄을 서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기대가 비관적이고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불친절한 환경일 것이라 예상한다면,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이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는 순수한 생각에 영감을 받는 순간, 이상하게도 세상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엉뚱한 녀석은, 마치 그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가장 좋은 물건이 있는 계산대에 뜻밖에 가장 먼저 다닙니다. 그러고는 첫 번째 고객이라는 이유로 물건을 공짜로 받게 됩니다! 그의 뒤에는 혹독한 현실을 믿으며 명청이들이나 행운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만약 그 행운아인 명청이가 '혹독한 현실' 때문에 세상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면, 현실 또한 자연스럽게 바뀌어 '깨달은 자'를 줄의 맨 뒤로 보내버릴 것입니다.

트랜서핑은 외부 세계의 환상에 눈을 뜨게 해주며, 그 주요 환상은 '독립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에 나와 있습니다.

Q. 책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였고 비슷한 가능태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인생 트랙이나 "너무 비슷한" 가능태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뷰의 한계 내에서 제가 유용한 원칙 하나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도 조율(Intention Coordination)**'입니다.

물질의 다른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 또한 원인과 결과의 사슬입니다. 가능태 공간에서 결과는 항상 원인 가까이 위치합니다. 전자가 후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이웃한 섹터들은 하나의 삶의 트랙(인생 라인) 위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에는 두 개의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불리한 방향으로 갑니다. 특정 사건에 직면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대한다면 인생 라인의 유리한 가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 편향은 당신을 불평하게 만들고 불리한 가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골칫거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엇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뇌우는 첫 번째 문제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법칙은 인생길의 갈림길에서 당신이 내리는 선택에 의해 형성됩니다.

의도 조율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로 '의도'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무리 힘들지라도 당신이 조율 상태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미래에는 매우 즐거운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련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역시 좋은 것이다."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다면, 당신은 알지 못하는 다른 문제들을 피한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당신의 운명, 즉 당신 스스로 창조한 운명을 맞이하려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더 나은 것을 위한 것입니다.

Q. 그렇다면 이 책은 결국 긍정적 사고에 관한 것인가요?

이것은 일반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현실을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세 배나 낙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정신이라면 항상 활기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낙관주의자는 그저 최선을 바랄 뿐이지만, 타고난 성품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만약 제가 비관주의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흔해 빠진 "다 잘 될 거야"라는 말로 저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왜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우선, 저 자신도 비관주의자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현실에 대한 태도를 제어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제 삶을 망치곤 했습니다. 내 삶에 불쾌한 일이 발생하면, 저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아주 의식적으로 즐거운 일로 선언해 버립니다. 이것은 100% 작동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정말로 잘 되는데, 올바른 태도가 주어지면 사건의 흐름이 항상 유리한 인생 라인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실이 나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을 제어합니다.

Q.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짧게 설명하려 한다면 독자들이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글 한 편 전체를 다룰 주제입니다. 따라서 제 답변은 다소 길어질 것입니다.

우선 이 책은 독자들에게 너무나 경악스러운 기성 사실을 제시하므로, 모든 이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이지만 무서운 현실보다는, 환상적이지만 편안한 세계에서 사는 것이 항상 더 쉽습니다. 환상이란 동기와 행동이 인간의 '의식'에 의해 통제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다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을 인간 마음의 한 속성이자 별개의 대상으로서 연구하느라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정신의 구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지(Will)**'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만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통제됩니다. 교사나 관리, 상사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세 세계(Subtle world)의 구조적 요소들(체계, 존재, 현상들)에 의해 통제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생각의 에너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룹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정신적 파동의 매개변수는 동일해집니다. 개별적인 생각 에너지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집니다. 에너지 바다의 한가운데에 정보에 기반한 구조들이 창조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펜듈럼(Pendulums)**'입니다.

탄생한 펜듈럼들은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구조적 요소인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행동합니다. 펜듈럼을 어떤 악의적인 힘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기생 식물이나 가상의 생명 프로그램과 비슷합니다. 구조 안에 내장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 구조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펜듈럼은 가족, 학교, 기업, 국가 등 모든 인간 사회 집단 위의 상부 구조로서 미세 세계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펜듈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기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떤 구조든 그것의 요소인 사람들의 의도적인 행동의 결과로만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 메커니즘의 작동이 알고리즘에 의해 통제되듯, 구조는 펜듈럼에 의해 통제됩니다. 구조의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행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동기에서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며 대개 구조의 이익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펜듈럼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짜증을 내거나 분개할 때, 당신은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한 부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은 펜듈럼에 의해 유발됩니다. 부정적 에너지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가 시작될 때 경기장 위에는 어떤 공 모양의 물체가 떠 있습니다. 이 공은 미세 세계에 존재하므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축수와도 같은 실제 에너지 빔으로 모든 관중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overheated(열기를 띠어갈수록)되면서 펜듈럼은 에너지로 채워지고 정말 거대해질 때까지 커집니다. 경기가 끝나면 작은 공으로 축소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끔찍한 점은 펜듈럼이 에너지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미묘한 방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긴장하고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바로 지금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정확히 그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전에는 얄팍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당신 곁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눈짓거리(방해꾼)가 됩니다. 온갖 인간들이 당신의 발밑에 기어들어와 자신의 문제로 당신을 괴롭힙니다. 온갖 장애물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면 그들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자주 당신의 신경을 건드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순간에 당신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불운하게도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서두르고 있고 늦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도로를 길게 막아서며 천천히 걷습니다. 문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는데, 겨우 다리를 움직이는 게으름뱅이

들의 긴 줄이 나타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자동차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신을 향한 어떤 음모가 존재함에 틀림 없어 보입니다.

이 외부 압력은 당신의 짜증과 함께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긴장이 강해질수록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무의식적 동기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사람의 정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펜듈럼의 영향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자극제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굴(oyster)이 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의식을 유지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도발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극제에 반응할 때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펜듈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훨씬 더 중대하고 frightful(무서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전쟁, 혁명, 원자재 및 판매 시장을 둘러싼 싸움, 경쟁, 테러리즘...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볼 수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반에는 펜듈럼들의 끊임없는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갈등의 에너지를 먹고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입니다. 이중 거울의 반대편 미세 세계에는 당신이 차라리 알지 못하는 편이 나올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아마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결국 사람들은 스스로의 이니셔티브로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동자는 펜듈럼입니다. 비교적 원시적인 구조인 개미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은 개미집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개미집에는 역할의 정확한 배분이 존재하지만 계급 제도는 없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미집의 모든 곤충들은 중앙 집권식 관리를 받는 조직처럼 일망타진하게 조율되는 것일까요?

개미들은 페로몬이라는 악취 물질을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냄새 경로는 음식과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민지 전체 구성원에게 동시에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개미들 사이의 어떠한 고차원적 정보 교환 형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냄새와 같은 원시적인 특성을 사용할까요?

개별 구성원들을 하나의 조직화된 식민지로 결합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펜듈럼'입니다. 구조의 형성 및 발전과 동시에 정보 기반의 에너지 요소가 형성되어 이 구조를 관리하고 안정화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펜듈럼과 구조의 요소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유대와 역방향 유대가 존재합니다. 펜듈럼은 지지자들의 에너지 비용으로 존재하며 그들의 활동을 동기화하여 조직화된 공동체로 결합합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이러한 미세한 구조적 요소들에 의해 통제됩니다. 세상은 비약적으로 매트릭스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것은 공상 과학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관을 쓴 세포 속에서 재배되고 그들의 삶이 단순한 가상 환상일 뿐인 유명한 영화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람을 매트릭스로 몰아넣기 위해서는 의존성 위에 구축된 그물을 그에게 감아야 합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의존성이 나타났습니다. 음식은 비만을 유발하는 사료로 변했습니다. 가상 컴퓨터 현실은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을 낳았습니다. 휴대폰이 없으면 사람들은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가장 최악인 점은 시스템에 노예가 된 사람이 선택의 자유를 잃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스스로 원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어느 날 매트릭스의 세포 속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의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펜듈럼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키우는 일종의 사료 작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 사회는 펜듈럼 없이 존재할 수 없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목적에 펜듈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주제입니다.

Q. 트랜서핑 시리즈로 3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론을 이해하고 삶의 트랙을 개선하려면 독자가 책을 모두 읽어야 하나요?

트랜서핑 시리즈는 모두 합쳐 9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뉘앙스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말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초보자에게는 처음 3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놀라운 발견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은 현실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술로, 당신이 더 이상 인형이 아니라 '자신 운명의 주인'이 되는 전혀 다른 세계로의 문을 열어줍니다.